

여성환경관리인의 역할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경남모직(주) 환경공무팀 최영화 대리

봄이 한창인 5월, 경남 마산에는 아카시아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여름을 만들고 있었다.

때곳한 계획도시 창원을 지나 다다른 경남모직은 산으로 둘러싸여 한결 부드러운 사업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과거 한일합섬과 함께 국내 섬유산업의 한 축을 그어온 경남모직. 이곳 수질, 대기 1종 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여성환경관리인 최영화 대리를 싱그러운 5월에 만났다. [편집자 주]



"환경관리인은 단순관리직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퍼레이터로 때로는 기계 수리원으로 망치도 들고 드라이버를 돌려야 해요. 여자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경남모직(주)는 1970년대 생산된 "K 양고라 텍스"라는 브랜드명으로 더 잘알려진 남성복 원단 생산 업체로 일반적으로 섬유업체가 방적, 염색, 가공의 한 분야만의 독립적 생산업체로 설립된 것과는 달리 전과정의 설비를 갖춘 국내 선두의 고부가모직물 생산업체이다.

많은 시설이 중국으로 이전되었지만 방적, 염색, 가공의 전과정에서 나오는 일일 폐수는 3000천톤이 넘는다. 수질, 대기 1종 사업장.

이러한 큰 규모의 사업장에서 환경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최영화 대리는 올해 입사 8년차 증견 사원이다. 깨끗한 작업복에 웃음이 예쁜 그녀가 험한(?) 환경관리 현장을 누비고 다닌다는 것이 필자에게는 아이러니했다.

폐수처리장 옆에 있는 그녀의 사무실에는 스페너, 망치 등 엔지니어들이 들고 다니는 장비들이 한켠을 채우고 기름이 묻은 장비와 장갑이 늘려 있었다.

"환경관리인은 단순관리직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퍼레이터로 때로는 기계 수리원으로 망치도 들고 드라이버를 돌려야 해요. 여자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당시 환경에 대한 비전이 한참 유행일 때 환경을 전공, 이곳을 첫 직장으로 삼고 지금까지 꾸준히 맡은 분야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녀는 프로다

경남모직은 수질 1종, 대기 1종의 사업장으로 수질의 경우 BOD 15PPM, COD 25PPM, SS 15PPM으로 방

류수 수질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대기는 먼지 농도 20mg/Sm³ 이하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

이곳에서 최영화 대리가 담당하는 일은 폐수처리장, 보일러·수처리 운영관리, 그리고 기타 환경과 관련된 전업무를 맡고 있다.

필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도 마음은 현장에 있는 듯하다.

폐수처리장의 경우 1999년 이후 고농도 폐수 발생공정인 소모공정의 투입원료를 1차 세척 처리된 원료로 교체함으로써 고농도 폐수 발생이 제로화 되었으며 약품 소요량도 90%이상 절감되었다고 한다.

수처리장은 낙동강 원수를 유입하여 자체 처리설비를 거쳐 각 공정에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냉각수로 이용된 물은 전량 회수하여 재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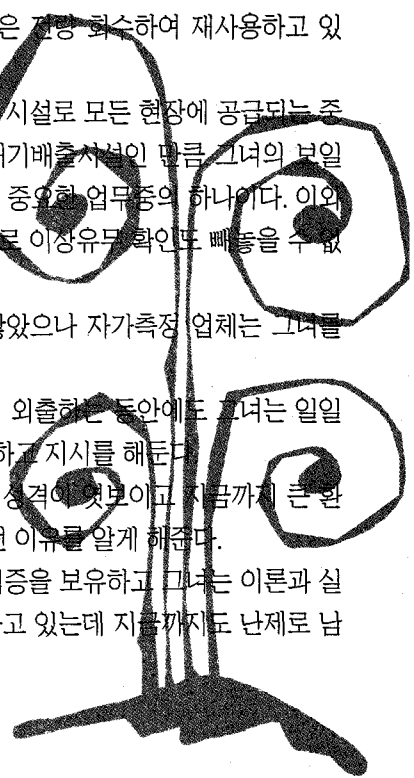
보일러는 총 60T 시설로 모든 현장에 공급되는 중앙 집중식 시설로 대기배출시설인 만큼 그녀의 보일러 관리의 점검 또한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이다. 이외 함께 오수관로, 우수로 이상유무 확인도 빼놓을 수 없는 업무이다.

인터뷰가 끝나지 않았으나 자가측정 업체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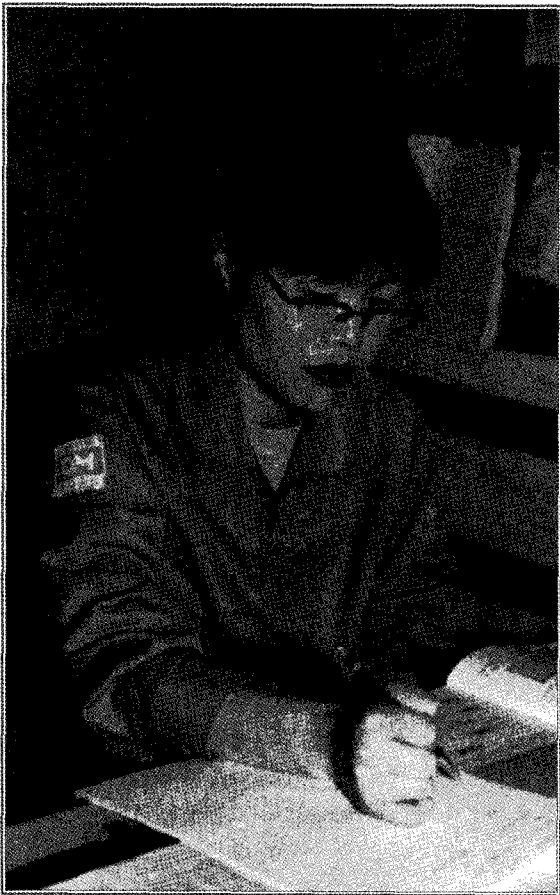
조금의 시간을 내서 외출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일일이 현장상태를 설명하고 지시를 해준다.

그녀의 면밀주도한 성격이 엿보이고 지금까지 큰 환경오염사고가 없었던 이유를 알게 해준다.

대기 1종, 수질 자격증을 보유하고 그녀는 이론과 실무를 잘 적용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난제로 남



아 있는 것이 폐기를 관리에 대한 업무라고 한다.
원활하지 못한 분리배출 습관으로 어떤 때는 폐기를
집하장에서 한나절을 보내는 때도 종종 있다고 토로
한다.



분리배출은 교육을 통해 동기부여를 심어줄 때 좀더
동참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

여성환경관리인만의 비전

환경관리인이란 직업은 이제 더 이상 선망의 대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최영화 대리는 후배 환경관리

인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 자체만으로도 비전이 있기 때
문이라는데...

환경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환
경관리인보다는 환경직 공무원, 연구소, 방지사설업
등을 선호하는 것 같아 유감이라 말하는 그녀, 물론
졸업생들 중에는 여성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
성이라는 데 대한 업체측의 편견, 열악한 근무 조건 때
문에 현직 여성환경관리인은 숫자를 셀 수 있을 만큼
적은 게 사실이다.

조직적으로 환경업무가 잘 짜여진 기업이 아니라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환경사고에 대한 정신
적 스트레스 등도 모두 환경관리인들의 몫이라는 게
그녀의 생각.

이러한 문제는 여성이라서 느끼는 것은 아니다. 어떤
분야든 개인의 능력이나 성향이지 남성, 여성의 구별
은 이제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녀는 "여성이라서 못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좀더 정직하게 좀더 꼼꼼하게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여자가기 때문에 유리한 것 같아요."

수동적 부서에서 능동적인 부서로 바뀌어야

대부분의 기업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는 많
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경영과 연관될 때에 있어서는
아직 보수적인 부분이 많아 조금은 힘들다고 말하는
그녀.

IMF이후 그 상황은 더 심화되었다고 한다. 경영위축
과 함께 환경투자관계도 상당히 위축되었고 구조조정
에 따른 부서의 통폐합으로 늘어난 업무로 힘들기도
하다.

아직까지 자발적인 분야이기보단 주변상황여건에 따
라 그 추진상황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유감이라고
... 그래서 최영화 대리는 환경업무가 생산활동의 마

지막에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의 부서가 아닌 배출시설의 설치 검토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배출시설의 선택과 작업방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발생량과 질의 차이는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 부서에서 벗어나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환경관리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직은 각 현장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몇번씩 찾아가야 하고 가끔은 현장에서 편한 대로 설비를 개조하는가 하면 사내 전역에 걸쳐 산재되어 있는 환경문제가 환경관계자만의 문제라는 생각이 버겁다. 그러나 꾸준히 협조를 요청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 언젠가는 충분히 개선되리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수십번 타부서를 찾아가다.

전공을 토대로 지속적인 공부 필요

고등학교 시절, 단지 향후 유망학과라는 이유로 선택한 길이 지금의 환경관리인, 향후에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조금은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그녀는 오늘도 열심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현장에 맞는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기계, 화학, 생물, 섬유 등 생산공정과 관련된 학문을 함께 터득해야 한다는 것이 큰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하는 그녀.

"환경이란 업무가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영역이라 스스로 배우지 않으면 더 이상의 근무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라는 그녀가 만들어가는 꿈은 환경이란 업종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분야인만큼 방지시설의 설계, 감리, 측정기술, 기타 처리기술등 다방면으로 손색이 없는 전문 ENGINEER가 되고 싶다. 지금은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미흡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목표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시작의 반.

"올바른 욕심을 크게 낼 줄 아는 자"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녀는 진정한 환경관리인이다.

스스로 하는 일에 최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쏟으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믿음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싶다.

이 지면을 빌린 것에, 정말 소신있고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다른 관리인들에게 미안하다고 겸손해하는 그녀. 어떠한 환경 문제도 긍정적인 사고로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일처리가 깔끔한 관리인이고 싶다고 마지막으로 말한다. 깨끗한 마산에는, 푸른 경남모직에는 맑은 환경관리인 최영화 대리가 있었다.



환경기술정보총람3 발간

원고 및 광고문의 : (02)852-2291